

유적지 순례 107

창화공(昌和公)의 자손들 ②



△17세 현성군 정주 묘소(양주시 봉양동 산63)



△18세 위령공 희달 묘소(선고묘 계하)



△21세 어모장군 우직 묘소(봉양동 산63)앞에는 말무덤이다.



△22세 빈 묘소(선고묘 계하)



△23세 이형 묘소(선고묘 계하)



△24세 규 묘소(선고묘 계하)



△25세 득원 묘소(선고묘 계하)

현성군(玄城君) 정주(定柱)

창화공의 증손으로 조부는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오른 현복군(玄福君) 형(衡)이고 부친은 중대광(重大匡) 보문각(寶文閣)제학(提學) 현성군(玄城君) 휘 용(鏞)이다.

초명은 준(濬)이다. 고려사에 공민왕 시해사건에 아우 진(璉)이 연좌되어 피화되었으나 공은 모면하여 부친의 배소인 원주에 함께 작거(譴居)하였다.

조선(朝鮮) 개국 후 출사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에 오르고 보사원종공신(輔社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또 무훈장군대원수라는 기록이 있는데 행적인지 알 수 없다. 또 현성군(玄城君)으로 봉군된 것은 부친의 玄城君을 승봉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보에는 장군으로만 기록되었는데 1983년 추밀공파보에 봉군으로 나왔는데 공의 절후 세장지는 경기도 양주의 회천이며 자손이 세거하고 7대손까지 이곳에 묘지를 이루고 있음은 인근이 사패지였음을 증명한다. 공의 부친이 원주에서 우왕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피화되고 홀로 적거하였는데 어떻게 조선조에서 후광을 얻었는지 의문이 간다. 공의 배위 문화유씨는 밀지사 계조(繼祖)의 딸인데 처남 유량(柳亮)은 문과급제하여 공양왕 2년 형조 판서를 지내고 4년 이조전서(吏曹典書)의 요직에 있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이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강릉도 관찰출척사(觀察出陟使)를 겸하고 태조 5년 계림부윤으로 예직과 전부 중 공을 천거(薦擧)해 공을 세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량(柳亮)은 태조 2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병조, 이조판서, 우의정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묘소는 양주시 내촌의 어등산에서 봉양동 산63번지로 명봉하였다. 아들은 위령공 희달(希達)과 희수(希遂), 희진(希進) 그리고 3녀를 두었다.

위령공(威戾公) 희달(希達)

18세(世) 위령공(威戾公) 희달(希達)은 태조(太祖)조에 개국원종공신(開國元從功臣)이 되었음이 태조 16년 실록에 있다. 정종 2년 이방원(李芳遠)의 핵심으로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정종 2년 대장군(大將軍)으로 제수되었고 태조 1년 대호군(大護軍), 태조 3년 상호군(上護軍), 태조 4년 임금이 한양 도읍지를 시찰할 때 호종하였다. 태조 8년 총제(總制), 동 10년 연안부사, 태조 12년 총제겸판사복시사(判同僕寺事)로 임금의 대사냥에 호종하고 상왕 정종에게서 옷을 하사받았다. 태조 18년 왕이 온천(溫泉)에 행차하는데 공이 호종하였다.

공은 세종 1년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가 되어 고부사(告訃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2년 임금이 상왕이 해주로 군사훈련 갈 때 사금질제사(同禁節制使)로 호종하였으며 세종 3년 도총제(都總制)로서 상왕을 양주에 호종하고 세종 5년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두 번째 명나라에 다녀오고 탄핵으로 유배되었으나 원종공신에 오래도록 태종을 호종한 공로로 세종 8년 자헌대부의 품계와 직책이 회복되었다. 세종 14년 중추원사(中樞院事)가 되고 세종 16년 졸하였다. 왕은 시호를 위령(威戾)로 내리고 “성조(聖祖)를 잡자에서 만나 원종(元從)의 반열에 오르고 곧은 신하로 하여(許興)하는바 되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말이나” 하였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계하에 있다.

19세 인(勳)

위령공의 장자로 관직은 사정이고 후사는 대호군(大護軍) 계충(繼忠), 차자 계효(繼孝), 3자 계지(繼智)와 2녀를 두었다. 위령공의 차자 사정 축(軸)은 가첩에 진잠현감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어등산 선영에 있다.

20세 계지(繼智)

현령(縣令)이며 상호군으로 나온다. 아들은 우직(友直)과, 우량(友諒)을 두었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어등산 선영에 있다.

21세 우직(友直)

어모장군(禦侮將軍) 법성포만호(法聖浦萬戶)이다. 명 가정 34년 조선 명종 10년(1555년) 을묘(乙卯)왜변시 호장인 공은 법성포만호장군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천리길인 법성포로 출정하였으나 도착해보니 이미 관군은 패하여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공은 흩어진 장졸을 모집하여 의병 본부대장으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현지에서 전사하였는데 공의 애마가 시신을 태우고 고향인 양주 회천 자택 대문 안으로 들어와 쓸어져 죽었다.

이에 충마(忠馬)를 거두어 공의 묘소 아래에 묻으니 말뼉이 되고 세칭 권장 판대기라 부른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유교가 있다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아들은 빈(彬)을 두었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영 위령공 묘소 아래에 있다. 공의 묘소 앞에 말무덤이 있고 문인석이 보인다.

22세 빈(彬)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경상병사에 이르렀다. 중종 20년 선전관을 지내고 세자익위사에 있었다. 중종 24년 모화관(慕華館)의 시사(試射)에서 수위(首位)하여 가자되고 경상도 수사를 거쳐 중종 32년 충청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하였다. 중종 32년 경원부사를 지내고 38년 내승을 겸직하였다. 가첩에는 사마시 생원, 진사 양장에 장원하였다고 한다. 후사는 이형(以衡), 이공(以公-수군정제사), 이평(以平-府使), 연(然) 4형제를 두었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계하 말무덤 아래에 있다.

23세 이형(以衡)

무과(武科)하여 판관(判官)을 지내고 광랑진 첨사(僉事)에 이르렀다. 파보에 선조 10년 정축(丁丑)1577년 순절하여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아들은 규(葵)이고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계하에 있다.

24세 규(葵)

관직은 수문장이고 아들은 득원(得源)이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계하에 있다.

25세 득원(得源)

관직은 통덕랑이다. 파보에 무관으로 현신교위를 거쳐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른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계하로 이장하였다.

26세 업(業)

직위가 감찰이며 숙종 6년 경신대출척에 보사공신(保社功臣)의 원종공신의 녹훈을 받았으며 숙종 12년 훈관(勳券)을 받았다. 묘소는 양주시 봉양동 선고묘 아래에 있다.

18세 희수(希遂)

희수(希遂)는 위령공 희달의 아우로서 공민왕 17년에 출생하여 태조 7년 호군(護軍)으로 전지 30결을 받았다. 세종 21년 73세로 행사직(行河直)을 지냈으며 후사는 만은공 효(曉), 옥(旭), 장(暲), 휘(暉)와 1녀가 있다. 묘소는 실전하여 전북 순창의 선고 만은공 묘소 위에 설립하였다.

19세 만은공(晩隱公) 효(曉)

만은공(晩隱公) 효(曉)는 관직이 수의부위(修義副尉)로서 가첩에 공은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갈 때 수행하였는데 중국인에게 학문으로 추중(推重)되었다. 수양대군이 공에 대한 지우(知遇)가 깊어 가인(家人)으로 대하였고 즉위하여 세조 1년 좌익원종공신 2등에 녹훈하고 장차 크게 쓰려 하였으나 공은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같은 뜻이 있어 원주에서 순창으로 낙행하여 둔거하였다. 유명(遺命)으로 비석(碑石)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사립(士林)이 유자에 서원(書院)을 세우고 향례를 올리고자 하니 예조에서 허락하였다. 순조 7년 본원의 남쪽 매동에 공사의 부역을 면제시켜주고 서원의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문경공 송환기(宋煥奇)의 축문에 장릉(莊陵)의 유신이요 광묘(세조)의 일사(逸士)라 하였다. 아들은 이평(以平)이 있고 묘소는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산24-6학현에 있으며 유언호가 묘표를 짓고 10세손 정규가 지문을 지었다. 재실은 성곡리 마을에 있다.

20세 이평(以平)

통훈대부 박천군수를 지냈고 묘소는 선고묘 아래에 있다.

21세 박사공(博士公) 세형(世衡)

만은공(晩隱公)의 손자는 세형(世衡)이며 성종조에 승문원 박사가 되고 강계부사를 지냈는데 연산군의 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묘소는 순창을 신남리 산3-1 있다. 후사는 령(筭), 선교랑(宣敎郎) 행(衍), 기(訖)이다.

22세 장증손 령(筭)은 참봉이고 후사는 구덕(九德), 상덕(尙德), 승덕(崇德), 준덕(俊德), 민덕(敏德), 종덕(種德)과 3녀를 두었다.

23세 승덕(崇德)

고손 승덕(崇德)은 중종 35년에 출생하여 호는 효우당(孝友堂)이고 효행으로 추천되어 참봉에 제수되었고 고경명이 순창군수로서 효우당은 8수를 지었다. 선조 30년 졸하니 수 58세였다. 승지 신경준이 행장을 짓고 판서(判書) 권적(權績-陽村10세손)이 유허비문(遺墟碑文)을 지었다. 묘소는 순창을 가남리 선고묘 뒤에 있다.

아들 용(鎔)은 명종 21년 출생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며 묘소는 가남리 선고묘 계하에 있다.

23세 남천공(南泉公) 대덕(大德)

만은공(晩隱公) 효(曉)의 고손 남천공(南泉公) 대덕(大德)은 선고가 기(訖)로서 연산군 4년에 출생하여 효행으로 참봉이 되고 선조 4년에 졸하였다.

남천공(南泉公)은 중종 29년 순창에서 출생하여 문인으로 명종 13년 식년시 합격하고 또 명종 16년 식년시 문과 병과 급제하여 3군(郡)의 수재(守宰)를 지내고 사간을 지내고 청백(淸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조 15년 남원부사가 되었다. 아들은 백시(伯時)이다. 묘소는 순창 구림면 성곡리 선고묘 아래에 있다.

24세 신계공(新溪公) 백시(伯時)

명종 15년에 출생하여 행의로 추천되어 사옹원 첨정(僉正)을 지내고 용안과 신계현령으로 청근(淸謹)하다 하였다. 병자호란 후 도내에 소두(尙頭)가 되어 김삼현이 청나라와 호의를 배척하여 심양에 구류된 것을 구하였다. 배위 창원정씨는 선조 30년 정유재란에 연못에 투신 순절하여 선조 37년 열녀의 정려(旌闈)가 내렸다. 묘소는 순창 가남 동산동의 선영 우측에 있다. 후사는 이공(以公), 이평(以平)이다.

(감수: 양주 권혁봉, 순창 권영의 편집: 竹堂 권경석)



△26세 업 묘소(선고묘 계하)



△만은공 재사(전북 순창 구림면 학현길 83)



△18세 희수 단소(순창 구림면 성곡리 산24-6)학현



△19세 만은공 효 묘소(순창 구림면 성곡리 산24-6)학현



△20세 이평 묘소(구림면 성곡리 산24-6)



△21세 박사공 세형 묘소(순창을 신남리 산3-1)